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명료함과 공성의 결합은

물에 비친 달과 같으니

그 어떤 것도 집착할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지하는 모든 것을, 윤회와 열반 전체에 걸쳐 있는 모든 현상은 우리를 마음의 자연스러운 창조성이 지어내는 유희로써 나타냅니다. 이 마음의 명징성 즉, 우리들이 감지하는 개별적인 현상의 모습은 마음의 텅 빈 본성이 발현된 광채입니다.

공성은 명징성의 본질이며, 명징성은 공성의 다른 표현입니다. 둘은 나눌 수 없습니다. 마음은 마음에 물에 비친 달과 같아서 호수 표면에서 달이 빛나고 있을지언정 그것을 잡을 수는 없는 일이지요. 현재 생생히 살아 있지만 동시에 형체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본성은 공성과 명료함의 합일이어서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으며, 무언가를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바위같은 딱딱한 물체처럼 공간을 차지하거나 다른 사물을 차단하는 물리적인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마음은 실체가 없고 두루 존재합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 조계종 종무행정학교 만족도 'GOOD'

전문종무원 양성을 위해 조계종이 올해 3월 개설한 종무행정학교에 대한 일선 교육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요조사 부족과 종무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교육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는 것은 숙제로 남았다.

조계종 총무부는 7월 5일 종무행정학교 상반기 운영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본소양과정', '행복한 관계 맺기', '총무기획실무교육', '재무회계실무교육' 등 상반기 교육에 총 172명이 참가했고,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08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행복한 관계 맺기 과정'은 4.53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단계별, 역량별 등 교육체계 수립과 교재 및 교과과정 개발, 교육 참가자 관리시스템 구축 등은 과제로 제시됐으며, 체계적 교수법 개발을 통해 교육 집중 향상도 숙제로 꼽혔다.

불교계 종무원들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보여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과제로 남았다.

총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실무 중심의 교육내용을 탈피해 기본소양, 마음

가짐과 자세, 실무로 과정을 세분화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이는 종무원의 정체성과 스님 및 신도와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과 실무 위주의 진행방식이 적절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과정명이 기존의 종무원 교육으로는 생소한 면이 있어 신청인원이 저조한 경우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찰종무

상반기 평가 보고서 나와

참가자 평균 만족도 높아

종무원의 잦은 이직 숙제

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교육효과 및 지속성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하반기에도 종무원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종무행정학교를 개설한다. 먼저 7월 24일부터 26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종무행정학교 예비종무원양성과정'을 진행하며 7월 24일



전문종무원 양성을 위해 올해 3월 처음 개교한 조계종 종무행정학교에서 참가자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수)~26일(금) 2박3일간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개설한다. 10월 경에는 경력 1년 미만

의 신입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12월에는 전문종무행정과정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조계종은 '신도맞이의 자세' 등 역량향상과정과 총무기획실무, 재무회계실무 등 실무향상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종무행정학교는 조계종이 지난해 6월 발표한 '1차 쇄신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사찰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이후 조계종은 '종무원법'을 개정과 시행령 제정해 학교 운영 근거를 마련해 3월부터 종무행정학교를 운영해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미래부 "선교회 조사·엄정 처리"

### 2일 종평위에 공문으로 해명... 교육 강화 약속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최근 공격적 선교로 물의를 빚은 관내 기독교 교회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엄정한 처리를 약속했다.

미래부는 7월 2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해명했다. 미래부는 공문에서 "부서 직원 1명이 개인 차원에서 선교회 활성화 목적으로 해당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며 "6월 초순 선교회에 관심이 많은 출입기자로부터 관심 있는 다른 출입기자들에게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까지 포함해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공무원의 종교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 신고센터에서 관련 사항이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향후 직장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약속했다.

이번 회신에 대해 종평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앞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가 접수된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공문을 보내 사안에 대한 엄중한 조사, 심사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 7대 종교 '이웃종교 템플스테이' 연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주최하는 '이웃종교 스테이'가 9월1일까지 열린다. 이는 이웃종교화합주간 행사 중 하나로 종교 간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KCRP는 "다른 종교의 성지 등에서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각 종교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며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7대 종단의 모인인 만큼 이번 행사는

△부석사(불교) △강화도(개신교) △영산성지(원불교), 청주향교(유교) △의장수도원(천도교) △천호성지(천주교) △대전 수운교 본부(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서 7차례 열린다.

특히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8월 9일~11일까지 개최되는 불교 프로그램은 108배다도 및 스님과의 대화, 운력, 컵등 만들기 등이 펼쳐진다.

정혜숙 기자

## 생활고 시달리는 참전용사를 보듬다

### 자승 스님, 1일 한국전쟁참전용사 가정 방문

매월 자비나눔 방문을 진행하고 있는 (재)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가정을 방문해 위로했다.

자승 스님은 7월 1일 경기도 포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전쟁참전용사 가정을 방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신선용 씨와 부인 추경순 씨를 격려했다.

이번 자비나눔 방문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참전용사 집을 수리 및 신축해주는 '13년 나라사랑 보금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5군단과 함께 진행됐다.

이날 아름다운동행은 신선용 할아버지

택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한 집 수리비 400만원, 1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건강잡곡 30kg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두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추경순 씨는 "너무 기쁘다. 오늘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자승 스님은 아름다운동행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매월 2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아름다운동행은 신 씨에게 7월부터 생계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재)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7월 1일 경기도 포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전쟁참전용사 가정을 방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신선용 씨를 위로하고 있다.

# 불이성 법륜사 일요법회 안내

불이성 법륜사는 태고종 창종주인 대륜스님께서 1946년 금강산 유점사 서울 포교당으로 창건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스님께서서는 포교의 일번지를 주창하며 당대의 훌륭한 법사와 포교사를 초빙하여 1950년대 불교계 최초로 일요법회를 개설하였습니다.

덕암스님 당시까지 이어 오던 일요법회가 지금은 맥이 끊어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소납이 2012년 주지로 부임하며 첫 번째 발원한 것이 일요법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이제 법륜사 일요법회가 다시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법륜사로 오십시오.

법륜사 '일요법회'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매주 주제별로 법석을 여는 일요법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 법회안내 -

- \* 첫째주 : 명상기도 법회
  - \* 둘째주 : 사경기도 법회
  - \* 셋째주 : 대다라니기도 법회
  - \* 넷째주 : 천수경 강의
- \* 대 상 : 초, 중, 고, 대, 일반인
  - \* 시작일 : 9월 첫째주 일요일
  -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 장 소 : 법륜사 3층 대불보전

문의 : 불이성 법륜사 종무소 (02-732-2710, 3920)